

□ 안녕하세요

- 오늘 비축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비축전문위는 6.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비축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.

[비축 관련 동향 및 비축전문위 역할]

□ 최근 코로나 사태, 美-中 전략 경쟁,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.

-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되었다면, 이제는 안정성(Security), 회복력(Resilience)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.
- 글로벌 위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핵심자원과 물자를 사전에 구비, 비축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.

□ 미국, EU, 일본 등 주요국들도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특히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

- 미국은 국방수권법(NDAA,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)에 ‘국방물자비축 프로그램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,
 - 희토류 등 핵심자원은 장기계약을 통해 미국 내에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EU는 핵심원자재법(Critical Raw Materials Act)을 통해 회원국간 비축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, EU 차원의 전략적 비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*하고 있습니다.

* 「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」(‘24.9)

□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비축전문위 출범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- 비축전문위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.
- 또한, 산업부, 조달청, 농식품부 등 공공비축 유관기관과 학계·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.

[비축전문위 논의 안건 설명]

□ 오늘 제1차 비축전문위 상정 안건은 ①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, ②공공비축 현황 및 '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(안), ③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등입니다.

① 첫 번째 안건은, 「비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」입니다. “체계적인 범정부 차원의 비축전략”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회 역할, 부처별 역할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② 두 번째 안건은, 「공공비축 현황과 '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(안)」입니다.

- 그간 기관별로 관리되어 온 공공비축 현황과 '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(안)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였고, 이를 토대로 향후 비축정책 수립, 비축예산 반영 등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.

③ 세 번째 안건은, 「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」입니다.

- 조달청에서 주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비축 필요성 등을 1차로 점검하였는 바,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.

[마무리 말씀]

- 오늘 비축전문위 회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.
- 비축전문위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안보를 지키는 “최후의 보루”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.